

어떻게 쓸 것인가

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재물은 파멸로 인도한다. 재물에 욕심이 많으면,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파멸로 몰고 간다.

- ‘작은 장사는 利文을 남기기 위해서지만, 큰 장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.’ ----- 조선 최고의 巨商 임상옥
- 말년에 임상옥은 자신에게 빚진 이들을 모두 오라고 해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. 주변에서 “왜 그렇게까지 하느냐?”라고 물으니, 그가 이렇게 답했다.

“나는 그들이 없었다면 장사꾼으로서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.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 물건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.”